

#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손 문 철\*  
김 영 귀\*\*

## 목 차

- |                       |                    |
|-----------------------|--------------------|
| I. 서 언                | V. 한국의 시각장애자 봉사 현황 |
| II. 시각장애자의 개념 및 범위    | VI. 시각장애자 봉사의 과제   |
| III. 시각장애자 봉사의 역사     | VII. 결 언           |
| IV. 시각장애자 봉사의 내용 및 현황 |                    |

## I. 서 언

본 연구는 도서관의 장애자 봉사중 시각장애자에 관한 봉사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각장애자의 개념 및 범위, 시각장애자 봉사의 역사를 더듬어, 그 활동현황을 살펴보고 봉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한국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도서관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맹인이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비타민결핍증으로 맹인이 된 취학전 어린이가 100,000명이 되고 많은 나라에서 약 5억이 인구과잉과 비위생적인 습관의 결과인 드라코마로 맹인이 되었다고 집계했다.<sup>1)</sup> '개발'세계에서의 시각장애는 다른 요인으로 생기나 결과는 꼭 같다.

이러한 맹인과 시각장애자에 대한 도서관봉사는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특수업무로 생각하여 「평등하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

\* 大邱大學校 圖書館學科 助教授

\*\* 大邱大學校 圖書館學科 講師

1) Margaret R. Marshall, Libraries and the Handicapped Child. Boulder, Col.: Westview Press, 1981, p.67.

는 입장이 아니라 「봉사해 주고 있다.」는 혜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봉사상의 장애요인을 찾아내어 그 해결점 모색을 통하여 앞으로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봉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시각장애자의 개념 및 범위

장애의 개념과 분류의 기능은 과거 수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거에 장애는 본래부터의 결함으로 보통 정신이나 육체의 영위한 장애로 생각되었다. 지금은 장애의 개념을<sup>2)</sup>, 개인에게 있는 손상으로서의 장애 (Impairment) ; 그 손상에 의한 기능장애 (Disability) ; 그 장애의 사회적 결과로서의 장애 (Handicaps) 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자는 소위 “불리한 사람 (Handicapped)”이 아니고 “부자유한 사람 (Disabled Person)”이다.

시각장애자에 대한 표현도 Visual Impairment, Visual Disabilities, Impaired Eyesight, Visually Disabled Person, Visually Impaired Person, Visually Handicapped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시각장애가 있으므로 해서 불리한 사람 (Visually Handicapped)이 아니라 부자유한 사람 (Visually Disabled Person)이 올바른 표현이라 하겠다.

시각장애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맹 (Blindness) 과 약시 (Low-Vision) 로 대별하고 안맹을 다시 정도에 따라 시력장애, 거의 실명한 상태, 완전히 실명한 상태로 세구분하며 약시는 중간정도와 심한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sup>3)</sup>

라이트와 데이비 (Keith C. Wright and Judith F. Davie)<sup>4)</sup>에 의하면

- 
- 2) 前田章夫, “障害者サービスの到達點とこれからの問題”, 圖書館雜誌, V.75, No.1, 1981, p.21.
  - 3) 韓國保健開發研究院編, 心身障碍者實態調査報告書, 서울; 同研究院, 1980, p.32.
  - 4) Keith C. Wright and Judith F. Davi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Handicapped Individuals, 2nd ed, Littleton, Col.: Libraries Unlimited, 1983, pp.41-42.

1) 교정후 0.1 이하 이거나 2) 0.1이 되더라도 시야가 20도 이하 일 경우등이 그 법적인 근거가 되지만 도서관봉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 인쇄물에 대하여 특수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독서가 불가능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특수기기에 해당되는 것은 확대기, 점자, 레코드, 카세트, 대형 활자본 등이다.

미국의 맹인봉사기준 및 인정위원회 (Commission o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of Service for the Blind, COMSTAC)<sup>5)</sup>에서 사용하고 있는 맹인 및 시각장애자는 보통 청안자(晴眼者)를 위해 만들어진 목자자료를 각자가 치료후 혹은 교정후에라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각을 잃고 있는 맹인, 시각장애자 또는 약시자(Partially Sighted Persons)를 가르킨다.

해글(Alfred D. Hagle)<sup>6)</sup>은 안맹의 정의를 두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의학적 정의(Medical Blindness)로 보는 능력의 결핍이나 상실, 시각기관의 탈, 두뇌의 어떤 부분에서의 장애로 인한 시각자극의 결핍이나 인지이고, 하나는 법적정의(Legal Blindness)로 소관관청의 교정렌즈로 더 좋은 쪽의 시력이 0.1 이거나 또는 시각의 가장 넓은 지름이 20도보다 더 크지않은 각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身體障害者福祉法」에서는 시각장애자를 1)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2)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쪽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3) 양쪽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sup>7)</sup>

한국의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1) 두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0.1 이하인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3) 두눈의 시야가 각각 10도이내인 자. 4)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 규정하고, 「심신장애자복지법

5) Howard Haycraft, 篠崎セウユ譯, “盲人および視覚障碍者のため圖書館サービスの基準,” 現代の圖書館, V.13, No.3, 1975, p.108.

6) Alfred D. Hagle “Information Access by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12, Wesley Simonton ed.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p.249.

7) 桒上衛, 圖書館活動, 東京:東京書籍, 1983, p.134.

시행규칙」은 시각장애자의 정도를 <표1>과 같이 6등급으로 나누고 있다.<sup>8)</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자에 대한 정의나 개념 및 범주는 국가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무리 확대하거나 조명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활자를 이용할 수 없는 맹인과 활자크기나 투사의 형태에 의해 변화된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약시자를 시각장애자로 보고 그들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역사, 내용 및 현황, 그리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 시각장애자등급표

1 급	두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추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한 것이 0.01 이하인 자
2 급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2 이상 0.04 이하인 자
3 급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9 이상 0.08 이하인 자
4 급	1.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13 이상 0.2이하인 자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5도 이내인 자
5 급	1.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13 이상 0.2이하인 자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3. 두 눈에 의한 시야의 1/2 이상을 상실한 자
6 급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 인 자로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2를 초과하는 자.

### Ⅲ. 시각장애자 봉사의 역사

#### 1. 기초단계

장애자에 대한 도서관봉사는 도서관이 존재했던 햇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최

8)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전국맹인복지기관총편람, 서울: 동북지회 1985, pp.122-132.

근의 일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자에 대한 역사는 오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656년 스토티(John Troughton)이 맹인으로 성존스대학(St. John's College)에 입학함으로써 그에 대한 도서관봉사가 시작됨으로서이다.<sup>9)</sup>

1784년 프랑스에서 맹인을 위한 도서를 생산하는 첫 개념이 널리 퍼졌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0)</sup> 1827년 에던버러의 콜(James Cole)이 알파벳문자의 개량에 의해 작성한 최초의 맹인용도서가 있었다.<sup>11)</sup> 그러다가 1829년 맹인인 프랑스의 브라유(Louis Braille)가 점자알파벳을 고안하여 맹인용 점자도서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였다.<sup>12)</sup> 또 그는 1834년 음악의 악보를 점자화<sup>13)</sup>하여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다.

한편 브라유의 점자를 영국의 문(William Moon)은 오늘날까지 계속 행해지고 있는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는凹凸문자 시스템으로 개발했다.<sup>14)</sup>

미국은 1832년부터 미국내에 존속하고 있는 맹아 및 시각장애자를 위한 기숙제 학교가 실시되고 있었으나<sup>15)</sup> 그 활동은 미비했다.

영국의 리버풀공립도서관(Liverpool Public Library)에서 1857년부터 맹인봉사를 시작하였다.<sup>17)</sup>

- 9) P.M. Jud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Needs of Visually Handicapped Students: a Survey of the Problems with Some Suggestions for Academic Library Policy," Journal of Librarianship, V.9, No.2, Apr. 1977, p.97.
- 10) Frank Kurt Cylk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Library Service for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Individuals: an Overview of IFLA Activities," UNESCO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Librarianship and Archives Administration, V.1, No.4, 1979, p.242.
- 11) 石見尙, 圖書館の時代, 東京: 論創社, 1980, p.332.
- 12) Eunice Lovejoy "Library Service to Handicapped People of the Advisory Committee," Public Library Quarterly, V.1, No.4, 1979, p.378.
- 13) Marjorie S. Hooper, "Braille,"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3, Allen Kent and Harrod Lancour, ed. New York; Marcel Dekker. 1970, p.161.
- 14) Genevieve M. Casey, "Library Service to the Handicapped and Institutionalized," Library Trends, V.20, No.2, Oct. 1971, p.359.
- 15) Howard Haycraft, 篠崎セウユ譯, 전개논문, p.109.
- 17) Thomas Kelly, A History of Public Libraries in Great Britain: 1845-1965,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3, p.80.

미국은 1858년 켄터키주의 루이스빌(Louisville)에 미국맹인인쇄소(The 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APHB)를 설립하였다.<sup>18)</sup> 이 기관은 학교나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가로 점자도서를 제공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중 1868년부터 보스톤공공도서관이 맹인용자료 8책을 가지고 맹인부를 설립하여 맹인에 대한 첫 봉사를 시작했다.<sup>19)</sup>

영국에서는 장서 38만권과 2개의 분관을 가진 대학생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1868년 런던에서 문을 열었으며, 1901년 점자약보대출도서관(Braille Music Lending Library)이 설립되었다.<sup>20)</sup> 또 1882년에는 맹인대출도서관이 자선사업으로 설립되었고 그 이름은 전국맹인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으로 바뀌어 점자와 문형태(Moon Type)와 마찬가지로 약시자에게 대형활자본을 제공하고 있다.<sup>21)</sup>

1882년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맹인무료대출도서관이 설립<sup>22)</sup>되어 독립된 전문도서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1890년 미국의 홀(H. Hall)이 점자타이프와 아연판제판, 인쇄기를 고안하여<sup>23)</sup> 점자도서의 대량생산에 크게 공헌하였다. 1895년에는 개인의 점자도서를 가지고 뉴욕맹인대출도서관이 설립되고 다음해 1896년에는 주립도서관으로서는 최초로 뉴욕주립도서관에서 맹인봉사부가 개설되었다.<sup>24)</sup>

그리고 1895년 이래 네덜란드맹인도서관이 점자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다.<sup>25)</sup>

1897년 미국 의회도서관은 약 500권의 점자도서와 점자약보를 가지고 맹인 열람실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의회도서관 사서였던 영(John Russell Young)이 착상한 전국 도서관프로그램으로 오늘날 미국에 거주하는 자격있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맹인과 신체장애자 전국도서관봉사(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

18) Genevieve M. Casey, 전체논문, p.359.

19) Keith C. Wright, Judith F. Davie, 전개서, p.47.

20) Genevieve M. Casey, 전체논문, p.359.

21)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0, p.232.

22) 森耕一, 公立圖書館原論,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3, p.138.

23) 本間一夫, 岩橋英行, 田中農夫男共編, 點字と朗讀への招待, 東京: 福村出版, 1983, p.201.

24) 森耕一, 전개서, pp.138-139.

25)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233.

capped, NLS)의 기초작업이며<sup>26)</sup> 이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각장애자 봉사가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 2. 발전단계

20 세기에 들어와서는 시각장애자의 봉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의회도서관을 정점으로 한 봉사는 놀라운 것이었으며 다른 나라의 시각장애자 봉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하겠다.

1904년 미의회도서관에서 일정한도의 점자우편의 우송료가 연방법에 의해서 무료로 되어<sup>27)</sup> 도서관의 대출사업 보급에 기여했다.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는 음악, 화학, 수학의 점자표기법을 출판하였다.<sup>28)</sup>

미국맹인인쇄소(APHB)는 의회와 교섭해서 1913년 법률에 의해서 교육목적 자료를 1부 의회도서관에 기탁하는데 성공했다.<sup>29)</sup>

1919년 남아프리카맹인도서관(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이 영국전국맹인도서관의 축소형으로서 세워졌다.<sup>30)</sup> 이 도서관은 남아공화국, 남서아프리카, 로디지아, 스와질란드, 잠비아와 나이지리아의 맹인독자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지금은 미의회도서관의 맹인과 신체장애 자부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 에디슨(Thomas A. Edison)은 1878년 축음기(또는 재생장치)를 발명하였는데 이는 녹음도서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와 축음기로 재생하는 토크 북(Talking Book)이 탄생되었다.

세계제2차대전 전에 있어서 획기적이었던 것은 미의회도서관이 1931년 이래 프래트-스무트법(Pratt-Smoot Bill)의 제정에 의해 성인맹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대출서비스(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토크 북)을 시작한 일이다.<sup>31)</sup>

26) JoEllen Ostendorf,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in School Library Media Service to the Handicapped, Myra Macon, ed. Westport: Greenwood Press, 1982, p.132.

27) 宍戸伴久, "アメリカにおける身體障害者に對する圖書館サービス—議會圖書館を中心に," 現代の圖書館, V.13, No.3, 1975, p.99.

28) 本間一夫, 岩橋英行, 田中農夫男, 共編, 전개서, p.201.

29) 宍戸伴久, 전개 논문, p.99.

30) Genevieve M. Casey, 전개 논문, p.359.

31) 宍戸伴久, 전개 논문, p.97.

1934년에는 카네기재단의 협력으로 개발된 토키북의 제작·대출이 시작되었고 토키북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무료기계가 자격있는 독자에게 대출되었다.

영국의 왕립 전국맹인협회 (The 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RNIB)는 1934년 영국맹인토키북 봉사를 설립했고<sup>32)</sup> 1935년에는 LP 음반으로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1958년 네델란드에서는 오픈릴테이프의 토키북이 소개되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1940년에 점자도서 700권을 가지고 일본점자도서관을 설립하여 세계제2차대전중에도 점자제작과 대출을 계속하였으며, 1958년에는 녹음도서가 시작되었고 그해 테이프도서관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sup>33)</sup> 공립도서관으로서 1929년에 鹿兒島縣立圖書館이 맹인열람실을 열었다.<sup>34)</sup>

1952년에는 프래트-스무트법 (Pratt-Smoot Bill)에서 ‘성인 (Adult)’이란 단어가 떨어져 나가 어린이에게도 토키북의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1962년 악보 및 음악교육의 교재가 그 제작, 수집, 대출의 대상이 되었다. 1964년 영국에서는 울버스크로프트 (Ulverscroft) 시리즈로 처음으로 대형 활자본을 출판했다.<sup>35)</sup>

1966년 미의회는 도서관봉사와 건축법 (Library Service and Construction, LSCA)을 제정하여 봉사를 전통적인 인쇄물을 읽을수 없는 맹인 이외의 신체장애 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맹인부 (Division for the Blind, DB)에서 맹인과 신체장애 자부 (The Division of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DBPH)라고 개정했다.<sup>36)</sup>

이 법은 Title IV라 불리며 Title IV-A (State Institutions)와 Title IV-B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로 나누어져 주도서관국이 맹인과 신체장애자는 물론 시설수용자에게까지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sup>37)</sup> 또

32)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232.

33) 加藤善徳, “日本點字圖書館 40年をふり返つて,” 圖書館雜誌, V.75, No.1, 1981, p.11.

34) 石見尙, 전개서, p.333.

35) Genevieve M. Casey, 전개논문, p.362.

36) Hylda Kamisar and Dorothy Pollet, “Those Missing Readers: The Visually and Physically Handicapped,” in Library Service to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Maryalls G. Strom, ed. Metuchen, N. J.: Scarecrow Press, 1977, p.16.

37) Genevieve M. Casey, 전개논문, pp.356-357.



1966년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맹인과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봉사기준(Standards for Library Services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을 정식으로 채택했고 맹인봉사기준 및 인정위원회(Commission o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of Service for the Blind, COMSTAC)가 출판했다.<sup>38)</sup> 1970년에 Title IVA와 B는 Title IV에 통합되었다.

1975년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신체장애 자봉사의 일환으로 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작이 어려운 학술문헌을 녹음제작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점자도서관에 배부하고 있다.<sup>39)</sup> 세계장애자의 해인 1981년에는 「新收點字圖書全國總合目錄」을 만들었으며 그해 11월 자료의 상호대차가 시작되었다.<sup>40)</sup>

1977년 IFLA에서는 맹인도서관운영단(Working Group of Libraries for the Blind, WGLB)를 설립하여 197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60명이 넘는 사서들이 모여 첫 회합을 가져 저작권, 체제, 우편법규/관세법, 국제관계, 서지표준, 출판의 6개 사항을 논의하였다.<sup>41)</sup> 1978년 UNESCO는 개발도상국에 유익한 프로젝트를 위해 모여서 세가지 건의안을 만들었다. 즉, 지침서, 점자생산, 세미나/워크샵이다.<sup>42)</sup>

1981년 U.N.이 정한 「국제장애자의 해」를 맞아 세계 각기에서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보스톤에서는 IFLA의 맹인에 대한 도서관봉사 원탁회의(Round Table of the Libraries for the Blind, RTLB)가 개최되어 세인의 관심도를 확충시키고 장애자를 위한 자료의 제작과 배포를 위한 정책 마련과 표준화를 고려하는 한편 IFLA가 행할 실천과제를 정하였다.

38) Genevieve M. Casey, 전계 논문, p.363.

39) 小木曾眞, “障害者サービス,” 圖書館界, V.36, No.5, 1985, p.316.

40) 田中章治, “障害者サービスの課題と現状,” 圖書館界 V.34, No.1, 1982, p.22.

41) Frank Kurt Cylke, 전계 논문, pp.245-246.

42) 상계 논문, p.247.

## Ⅳ. 시각장애자 봉사의 내용 및 현황

시각장애자는 활자장애를 거쳐 보통 도서나 인쇄자료를 읽을 수 없다. 이는 축적된 정보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교육, 문화, 정보장애를 낳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알 권리」와 「배울 권리」의 상실은 도서와 자료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도서관을 통해 배포되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활자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자의 중요한 독서수단이 되고 있는 점자도서 및 토키북봉사, 대형활자본 및 라디오낭독봉사 그리고 컴퓨터의 도입에 의한 최신독서기에 관한 것을 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점자도서봉사

점자는 시각장애자가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게 한 특수한 부호글자이다. 점자는

〈표 2〉										점 자 표 (6점점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b	c	d	e	f	g	h	i	j																		
⠁	⠃	⠅	⠇	⠉	⠋	⠍	⠏	⠒	⠔																		
k	l	m	n	o	p	q	r	s	t																		
⠗	⠙	⠛	⠝	⠟	⠡	⠣	⠤	⠥	⠦																		
u	v	w	x	y	z																						
⠱	⠳	⠵	⠷	⠹	⠻																						

\* 각 점자 도표는 읽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독자적인 문자체계가 있어 크고 작은 6 개의 점을 가지가지모아 맞추어 (<표2> 참조) 문자 및 부호로 나타나게 한 것인데 현재 세계 각국의 표음문자를 쓰는 나라 는 이것을 그 나라 문자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점자는 1829 년 프랑스의 맹인 브라유( Louis Braille )가 고안한 것이어서 서양에서는 발명자의 이름을 따 브라유라고 한다. 현행 한글점자는 1926년 당시 재생원맹아부( 현 서울맹학교) 교사 박두성( 朴斗星)이 창안한 것으로 한글풀어 쓰기 원칙을 응용해서 받침도 글자아래 쓰지 않고 가로쓰기를 한 것이 특색이다.<sup>43)</sup>

점자도서( Braille Book )에 의한 독서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점자의 가장 심각한 단점은 대부분의 맹인이 점자를 읽을 수 없거나 기술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에는 정보를 기록하고 검색하는데 다른 방법을 좋아하거나, 뒤늦게 시각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 책을 점역하는데 2-3 개월이 걸리며<sup>44)</sup> 비용이 전통적인 도서보다 5 배 정도 들고, 표면자료에 구멍이 뚫리고 찢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대체가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이 든다.<sup>45)</sup> 그래서 지질이 두꺼워야 오래가는 대신 분량이 많아져 취급하기 힘들고 장소도 많이 차지한다. 이런 크기문제는 도서관과 우체국에서 우송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독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적으며 가장 적게 이용된 매체이며 따라서 그 구매력도 낮다.

이러한 점자도서의 분량은 축적공간, 즉 도서관에서 많은 서가를 필요로 한다. 이희승 「국어사전」을 점역하면 84 책이 되고 학생들 교과서일 경우 보통 3-4 책이 된다. 헬렌·켈러의 전기인 라쉬( Joseph Lash )의 「 Helen and Teacher 」는 8 책이 된다.

그런데 점자도서가 생산하는데 비싼 반면 녹음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자는 더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고, 녹음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탐색과 검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점자는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인과 시각장애자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43) 東亞原色百科事典, V.24, 서울: 東亞出版社, 1983, p.538.

44) 藤孝雄, “福祉と圖書館,” 圖書館雜誌, V.75, No.1, 1981, p.12.

45) Margaret R. Marshall, 전게서, p.19.

또 점자와 활자를 읽을 수 없는 매우 어린 시각장애 아들이 점자도서처럼 손을 댈으로써 느낄 수 있는 책의 이용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촉각도서를 위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선(線) 삽화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sup>46)</sup> 미국의 Twin Vision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특수출판사로서 「땅콩」에서 「미국 독립선언문」까지 열가소성물질매체로 만질 수 있는 그림, 활자 그리고 점자로 한 쌍이 된 것을 수천 타이틀씩 생산하고 있다.<sup>47)</sup> 이로서 시각장애 아와 정상인을 가진 친구가 같이 한 그림책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점자도서의 단점은 1960년에 컴퓨터가 점자생산에 들어옴으로써 점차 보완되고 있다. 미국은 IBM 709로 영어원문을 1시간에 55,000어의 속도로 점자로 번역하는 능력<sup>48)</sup>을 가지고 있다. 점자생산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가장 혁명적인 개발은 전자점자(Electronic Braille)인 “종이 없는 점자(Paperless Braille)”, 또는 “카세트점자장치(Cassette Braille System)”<sup>49)</sup>로 점자문자입력은 오디오로, 때때로 컴퓨터로 움직이는 카세트에 축적된다. 출력은 음성이나 음악이 아닌 점자이다. 따라서 카세트가 축적하고 우송하는데 분량이 많은 점자도서보다 더 쉬워서 개인독서와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복잡한 자료를 연구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보울더공공도서관(Boulder Public Library)는 새로운 점자컴퓨터센터를 공개했는데, 도서관점자장치의 하나인 Thiel Braille Embosser는 점자인쇄에 혁명을 일으켜 약 10초만에 한 페이지를 생산, 즉 일분에 약 130자에 달한다.<sup>50)</sup>

점자도서의 인쇄 및 점역화사업은 복지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점자도서출판사는<sup>51)</sup> 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46) Frank Kurt Cylke, et al. “Research to Develop Information Service Aids and Programs for Handicapped Individuals,” Drexel Library Quarterly, V.16, No.2, 1980, p.64.

47) Margaret R. Marshall, 전게서, p.73.

48) Howard Haycraft, 鶴澤義雄譯, “盲人と身體障害者のために圖書を解説と評價,” 現代の圖書館, 特別號, No.2, 1979, p.67.

49) Frank Kurt Cylke, et al., 전계논문, p.65.

50) Fran Hooker, “Computerized Braille: the Boulder Story,” Wilson Library Bulletin, V.59, No.8, 1985, p.527.

51) Alfred D. Hagle, 전계서, p.251.

(APH) ; Clovernook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CPH) ; National Braille Press (NBP) ; Triformation (TRI) ; Volunteer Services for the Blind (VSB)이다.

영국에서 가장 큰 점자제작자는<sup>52)</sup> RNIB :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 The Scottish Braille Press이다.

이렇게 제작된 점자도서를 이용자에게 알리기위하여 미의회도서관의 신간점자도서목록을 무료로 우송한다. 즉, 격월간 Braille Book Review, 2년분을 취급하는 For Younger Readers, Braille Book Review와 Talking Book Topics에 나타난 어린이도서 주제서지인 Animal Fair 등으로 시각장애자들에 출판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90 개의 점자도서관<sup>53)</sup>이 있는 일본은 약 60 개의 도서관이 점자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4)</sup>

## 2. 대면낭독봉사

대면낭독 ( Reading Service )이란 도서관자료의 열람의 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자를 앞에 두고 낭독자 ( 자원봉사자, 도서관이 낭독료를 지불하고 의뢰하고 낭독자, 또는 도서관직원 )가 시각장애자의 눈을 대신하여 자료를 읽어서 들려주는 방법이다.<sup>55)</sup>

그 방법은 보통 1대1 또는 1대 집단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자뿐 아니라 모든 시각장애자에게 독서수단이 되고 있다.

또 시각장애아를 위해서는 옛날 이야기나 생활주변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 Storytelling )이 있다. 가장 분명한 잇점은<sup>56)</sup> 언어 자극, 청각자극, 시각자극, 경험, 치료효과, 사회화이다. 스토리텔링은 시각적인 용어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서술적인 용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각색을 필요로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굴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억양으로 전

52)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232.

53) 糸林保夫, “點字圖書館界として望むこと,” 圖書館雜誌, V.76, No.2, 1982, p.92.

54) 河村宏, “國際障害者年における圖書館の役割,” 圖書館雜誌, V.75, No.1, 1981, p.16.

55) 日本圖書館協會編, 圖書館 Handbook, 東京 : 同協會, 1979, p.334.

56) Margaret R. Marshall, 전개서, pp.124-126.

달하기 위하여 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대면낭독의 문제점<sup>57)</sup>은 독서행위에 필수적으로 낭독자라는 제3자가 개입되기 때문에 독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그 봉사를 받으려면 직접 도서관에 와야하며, 낭독시간과 장소를 조정해야 하는 절차와 2시간 이상의 연속낭독이 불가능하므로 정상인과 비교할 때 동일한 자료를 읽는데 5-10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공공도서관으로서는 東京都立日北谷圖書館이 1970년 시각장애자에 대한 대면낭독봉사를 시작했고<sup>58)</sup> 대면낭독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국에서 50관정도가 된다.<sup>59)</sup>

### 3. 토크북봉사

많은 시각장애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정보를 입수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기술의 진전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자를 돕는 여러 장치가 제공되었다. 시각장애자들은 “읽기” 위해서 청취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의 하나가 토크북(Talking Book)이다.

토크북이란 명칭은 어윈(Robert Irwin)이 처음 썼으며 전통적인 인쇄도서가 오픈릴테이프에 서술되어 디스크나 카세트에 변환된 것이다.<sup>60)</sup> 토크북은 여러 이유에서 성공적이었다. 1) 음악보다 덜 복잡한 소리형태를 가지고 있는 말은 낮은 재생속도를 전달 수 있다. 2) 더 긴 패시지가 각 단위마다 녹음될 수 있다. 3) 도서의 저작권자는 상업녹음이나 카세트 재생에 다시 재생될 수 없는 녹음속도에 음재생을 더 많이 인정할 것이다.<sup>61)</sup>

그러나 기술지도서와 내용이 난해한 전문자료일 경우 토크북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하고 의문점에 대한 피이드백이 불가능해져 수동적인 독서가 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sup>62)</sup>

57) 前田章夫, “障害者にとつては一対面朗讀サービスの現状がみちる問題と課題,” 圖書館界, V.31, No.2, 1976, p.202.

58) 小木曾眞, 전계논문, p.315.

59) 前田章夫, “障害者サービスの到達點とこれからの問題,” 圖書館雜誌, V.75, No.1, 1981, p.21.

60) JoEllen Ostendorf, 전계서, p.133.

61) Frank Kurt Cycke, et al., 전계논문, pp.59-60.

62) 朴玉花, “障害者を 위한 公共圖書館奉仕에 關한 研究 - 視覺障礙者를 中心으로 -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제 11권 2호, 1984, p.449.

미국의 토크북봉사는 1931년 프래트-스무트의안(Pratt-Smoot Bill)이 승인되었을 때 맹인 성인만을 위해 제공되었으나 1952년 “성인”이란 단어가 떨어져 나가 어린이에게도 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른 독서장애자들도 추가되었다. 의회도서관의 NLS가 제작한 토크북은 전국을 통해 160이 넘는 지구(Regional)와 부지구(Subregional)도서관에 배포되어 이용자에게 우송된다.<sup>63)</sup>

토크북제작의 높은 비용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되었다. 미의회도서관의 NLS의 1968년의 신축성디스크(Flexible Disc)와 1969년의 카세트재생기이다.<sup>64)</sup>

신축성디스크는 하드디스크처럼 내구성이 부족하지만 값이 싸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우송하기에 가볍고, 분량이 많지 않아 보관에 좋다. 또 손상과 파손에 저항력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직원시간과 보관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독자는 더 적시에 받을 수 있다. 1981년 토크북프로그램아래 37종 잡지가 이 디스크에 녹음되었다.

디스크와 점자정보보다 더 휴대하기 쉬운 카세트는 활동적인 독자에게 더 없이 귀중한 혜택이었다. 특히 소형카세트에서 테이프는 레코오드보다 더 소형이고 가벼우면서도 재생시간은 같다. 또 테이프는 쉽게 복제될 수 있고 카세트 재생기는 더 작고, 싸고, 용도가 넓다.

토크북에 관한 모든 신간을 수록하는 격월간 잡지인 Talking Book Topics는 카세트와 디스크도서를 싣고 신축성디스크, 대형활자본, 카세트로 이용가능하고 접자로 된 주문용지가 있다.<sup>65)</sup>

토크북 이용자가 사용하는 특수녹음생기, 카세트기계의 수리는 자원봉사단체인 미국전화기술자연맹(Telephone Pioneers of America)이 맡아하고 있다.<sup>66)</sup>

일본의 토크북봉사는 국립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76년부터 국립국회도서관의 학술문헌 토크북봉사를 받는 공공도서관의 수는 160권이 넘는다. 또 점역, 토크북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시각장애자가 희망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점자녹음도서의 진구종합목록(반년간)을 편찬.

63) JoEllen Ostendorf, 전게서, p.134.

64) Alfred D. Hagle, 전게서, pp.264-265.

65) JoEllen Ostendorf, 전게서, p.139.

66) 상게서, p.151.

간행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 4. 대형활자본봉사

약시자를 돕는 첫 단계는 대형활자본(Large Book)을 제공하는 일이다. 대형활자는 14포인트에서 30포인트(신문이 8포인트)가 전형으로 맹인과 시각장애자를 위한 독서자료 생산기준(Standards for Production of Reading Materials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은 최저 16포인트를 허용했다<sup>67)</sup>

읽기 쉬운 대형활자본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1) 증가된 활자크기와 행간사이 2) 더 검은 잉크와 더 굵은 획이 되는 특별한 활자무게 3) 눈을 괴롭히지 않는 세리프형태 4) 번쩍번쩍 빛나지 않는 종이<sup>68)</sup>이다.

대형활자출판물은 자료를 대형활자, 사진확대 또는 대형활자타이프라이터로 타이프쳐서 생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대형활자본을 제작하는 곳은 G.K.Hall; Ulverscroft; Chivers; Magnaprint; Caedmon; Listening Library; Calibre이다. 그리고 대형활자본에 대한 신간정보는 Bowker사의 Large Type Books in Print, 미국맹인출판사의 General Catalog of Large Type Textbook, NLS의 Reading Materials in Large Type, Vision Foundation Inc.의 A Large Type Print Inventory List에서 입수할 수 있다.<sup>69)</sup>

대형활자본은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활자장애를 가져 스스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 또 약시자를 도울 수 있는 확대보조장치가 있다. 폐쇄회로(Closed Circuit Television System, CCTV)와 오페이크투사장치(Opaque Projection Aids)가 있다.<sup>70)</sup> CCTV의 예는 Apollo Laser와 Visu-alktek이 있다.

#### 5. 라디오낭독봉사

최초의 라디오낭독봉사는 1969년 미네소타의 맹인과 시각장애자봉사부장인 포

67) Keith C. Wright, Judith F. Davie, 전게서, p.43.

68) Margaret R. Marshall, 전게서, p.74.

69) Keith C. Wright, Judith F. Davie, 전게서, p.43.

70) 상게서, p.45.



터 (C. Stanley Potter)가 설립했다.<sup>71)</sup>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에 85개 이상의 그런 방송국이 있다.

이 라디오 낭독의 내용은 광범위한 정보와 신문, 잡지, 토론, 토크북 등등이 전달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방신문의 라디오전달이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해머 (S. Hammer)는 라디오낭독봉사를 공공도서관의 정보봉사와 관련시키는데 그 목적은<sup>72)</sup> 1) 현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 활자장애자에게 유용하지 않는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 이용가능한 다른 봉사(예, National Public Radio)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하여 4) 프로그램작성의 균형과 깊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5) 고객의 편의에 따라 재낭독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미의회도서관 NLS는 맹인과 신체장애자 지방 라디오 봉사명감(Directory of Local Radio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을 출판했다. 이 라디오 낭독봉사는 점자도서와 토크북이 가지는 높은 제작비용, 제작시간, 제작부수의 제한등의 제한점을 극복하여 시각장애자와 신체장애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 6. 독서기

대표적인 독서기(Reading Machine)로서는 옵타콘(Optacon)과 쿠르즈웨이(Kurzweil)로 일상의 인쇄 자료를 다른 매체로 바꾼다.

Optacon(Optical-to-Tactile-Converter)은 문자가독장치로 점자와 같이 문자로 번역하지 않고 문자의 형태를 손가락의 피부감각으로 인식해서 직접 읽는 방법으로 1970년 Telesensory Systems, Inc.(TSI)가 설립되어 상용화되었다.<sup>73)</sup> 이 기계는 가볍고 휴대하기 쉽고 전지로 움직인다. 옵타콘에 관한 광범위한 서지는 Reading Machine for the Blind(Washington, DC:NLS, 1980)에서 찾을 수 있다.

쿠르즈웨이독서기는 매사추세츠주의 Kurzweil Computer Products of Cam-

71) Alfred D. Hagle, 전개서, p.269.

72) Keith C. Wright, Judith F. Davie, 전개서, pp.46-47.

73) 加藤崎, 龍尾惠子, “視覚障害者の讀書用器について,” 現代の圖書館, V.13, No.3, 1975, p.93.

bridge가 도입했으며 지금은 Xerox사 소유이다. 전자식 주사(Scanning)을 사용하여 열람하는 장치로 인쇄자료는 언어출력으로 바꾸기 위해 컴퓨터-카메라의 결합을 이용한다. 쿠르즈웨일은 컴퓨터와 연결된 장치로 그 구성요소들은<sup>74)</sup> 미니컴퓨터, 주사기(Scanner)와 자동카메라, 입력키보드, 소프트웨어카세트 로 계산과 독서를 위한 것, 케이블세트 등이다.

이밖에도 옴타콘에 부착된 음성출력독서장치(Voice Output Reading System) 및 TSI의 점자카세트레코더인 버사브레일(VersaBraille) 같은 것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영어로 인쇄된 문자를 영어음성으로 출력시키는 것이다.<sup>75)</sup>

최근 캐나다의 콩고르디아대학팀이 개발한 「시각장애자용 통합워크스테이션」이 있다.<sup>76)</sup> 이 시스템은 시각장애자가 컴퓨터를 이용,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통상의 마이크로컴퓨터시스템에 음성출력장치와 점자디스플레이를 부착한 것이다. 시각장애자는 기계가 읽는 문자를 간단한 키보드의 조작에 의해 음성이나 점자로 출력시켜 문자를 이해하고 또 이를 이용해 문서를 처리맹인이 사무를 볼 수 있게끔 했다.

이외에도 전화로 점자를 주고 받는 전신점자(Telebraille)가 있다.

## V. 한국의 시각장애자 봉사현황

한국의 시각장애 자수는 1979년 한국경제개발협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07,733명, 1980년에 실시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41,4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7)</sup> 그러나 약시일 경우 부모가 억지로 일반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고, 시골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며, 사고로 인한 실명도 통계에 잘 잡히지 않아 10만명이 넘는 것이 현실적인 장애 자수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전맹자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4,300명인 것으로

74) 孫蓮玉, 南權熙, “障碍者를 위한 圖書館奉仕에 관한 研究 - 身體障碍者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圖書館學科創立十周年紀念論文集, 1984, pp.161-162.

75) 河村宏, “米國圖書館の障碍者サービスを訪れて”, 圖書館雜誌, V, 75, No.5, 1981, p.264.

76) 조선일보, 1984, 2, 9. 8면.

77)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編, 障碍者福祉便覽, 서울: 同財團, 1981, p.251.

나타나고 있다.<sup>78)</sup> 그러나 맹인수의 실태에서 비추어 실재는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맹인 및 시각장애자가 되는 원인으로는 전염병, 외상, 정신질환, 중추 신경질환, 선천성 소인이 있는데 선천성과 원인불명이 80%가 넘는다.<sup>79)</sup>

그외에도 한국은 일제하에서의 전쟁, 6.25사변, 월남전 참전과 같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과, 산업화정책에 따른 산업재해, 경제발전으로 인한 급증한 교통사고와 의학의 발달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하의 한국에서 시각장애자에 대한 도서관봉사는 <그림 1>의 「전국 맹인복지기관분포도」<sup>80)</sup>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110개의 맹인복지기관중에서 도서관·실은 7관으로 가톨릭맹인선교회 부설 녹음도서관, 대구대학교 부설점자도서관, 부산맹인도서관, 서울특별시립점자도서관, 적십자사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부설점자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 뿐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들 7개 도서관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봉사현황<sup>81)</sup>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맹인선교회부설녹음도서관은 1982년에 개관하였으나 실제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

대구대학교의 점자도서관은 1981년 6월 1일 개관하여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점자도서, 녹음도서의 출판과 제작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용구도 개발하여 보급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와같은 활동은 그 이전부터 전개하였던 바로 1958년부터 맹아학교 점자도서출판부를 설치하고 1964년부터 국민학교용 점자교과서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그 시설로는 점자인쇄실, 점자도서열람실, 녹음도서제작실과 열람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기류로는 점자인쇄기 8종과 녹음도서제작기류 10종을 들 수 있다.

장서량은 점자도서 4,800책, 녹음도서 2,000책, 일반도서 7,000책으로 모두 13,800책을 소장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봉사하고 있다. 1982년 3월

78) 상계서, p.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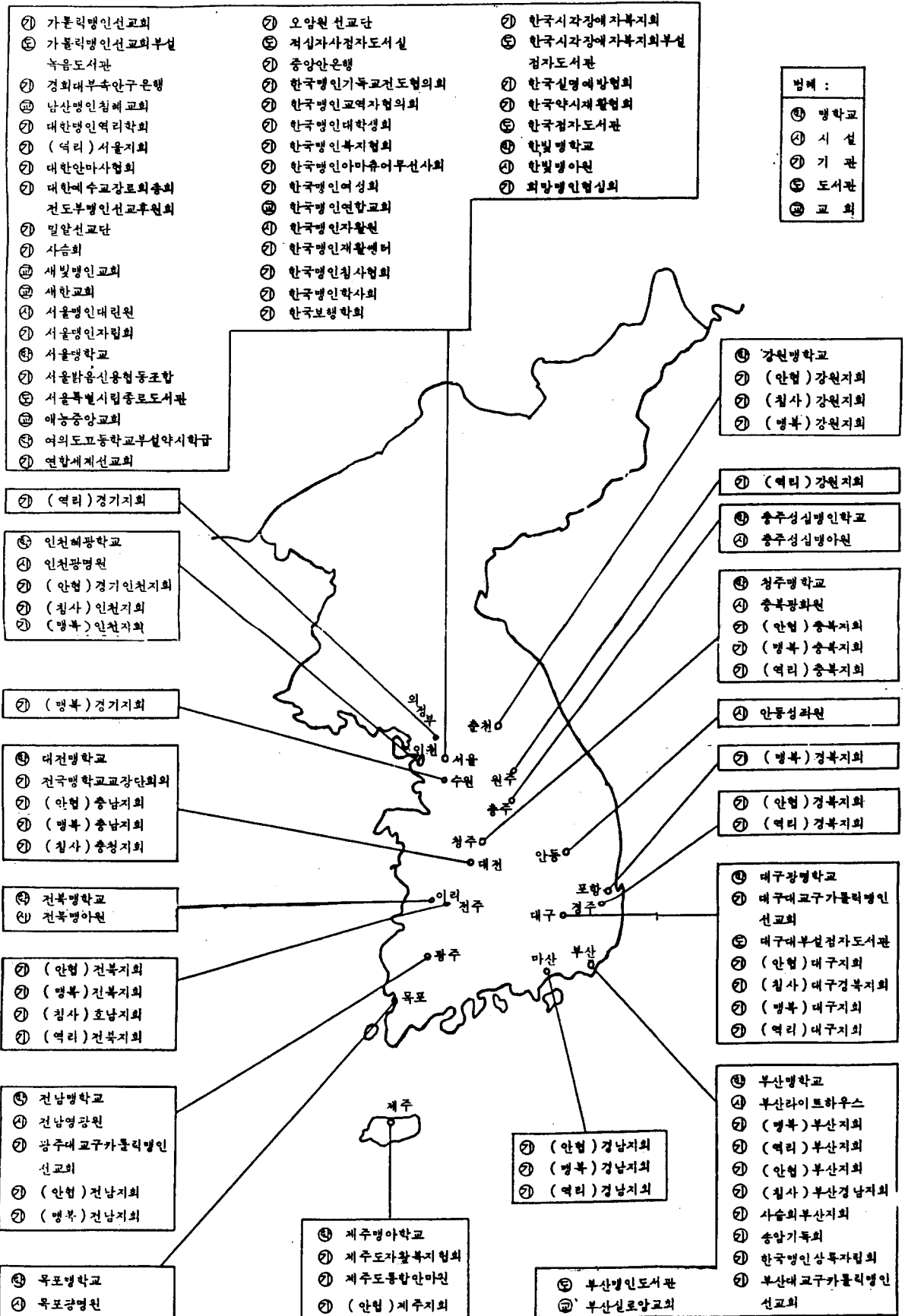
79) 東亞原色百科事典, V.11, p.518.

80) 한국시각장애복지회 편, 전계서, p.2.

81) 상계서, pp.97-103.

전국맹인복지기관분포도

[그림 1]



맹학교용 고등교과과서를 출판보급하고, 1982년 9월 녹음도서를 대출했으며 1983년부터 격주간 「대구대신문」을 점역판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회원수(1984년 9월 현재)는 82명이다.

한편,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서 종로도서관은 1984년 4월부터 맹인들을 위한 맹인전용열람실을 마련하고, 점자도서 73종 629책과, 녹음도서 77종 512책을 보유하고 있다. 1984년 10월에는 녹음방송실을 설치했으며 회원수는 190명이다.

부산맹인도서관은 1983년 개관하였으며 1984년 휴대용 「점자달력」을 제작하였고 녹음도서 99종, 1,080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

적십자사점자도서실은 1977년 개관하였으며 점자도서 1,592책, 녹음도서 4,500책이며 1981년에 녹음도서를 제작하였다. 회원수는 839명이다.

한국 시각장애자복지회부설점자도서관은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일 반도서 960책, 점자도서 10,000책, 녹음도서 382종, 2,859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설립되었으며, 1970년 점자도서 대출을 시작했고, 1971년 「점자전화번호부」 제 1호를 발행했고, 1977년 매주 1회 「광명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아세아방송국에서 15분씩 맹인에 대한 계몽방송을 실시했고, 1978년 녹음도서를 제작했으며, 회원수는 1,693명이다.

외국과 일본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봉사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도서관봉사는 봉사도서관수의 면에서나 그 내용면에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우 점자도서와 녹음도서의 제작과 대출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봉사의 빈약함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 Ⅵ. 시각장애자 봉사의 과제

지금까지 시각장애자에 대한 봉사현황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 1. 시각장애자에 대한 인식부족

시각장애자에 대한 인식부족에는 도서관측이 갖는 인식부족과 도서관의 정보봉

사에 대한 시각장애자의 인식부족이 있다. 전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시각장애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 그래서 한 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다고 믿는 감정과 태도가 편견으로 이끈다. 이것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태도장애이다. 후자는, 시각장애자가 실제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정보봉사를 모르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홍보의 부족이므로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안내하는 안내서나 서지등의 적극적인 제작이 필요하다. 또 시각장애자가 도서관에 기대를 안하는 경우다. 이는 도서관과 시각장애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시각장애자의 정보요구와 도서관이 생각하고 있는 봉사에 간격이 생기므로해서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시각장애자도 일반사람들과 꼭 같은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2. 시각장애자를 위한 기기개발 및 보급

외국은 컴퓨터와 연결된 독서기나 약시자를 위한 확대보조기구등 기기개발과 보급이 활발하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아직 점자타자기도 부족하여 저렴한 점자타자기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 녹음도서를 대출받아도 녹음기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과 일반인이 많다고 한다. 일반인의 녹음기기탁을 위한 도서관캠페인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 3. 공공도서관의 봉사확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시각장애자 봉사는 전적으로 복지기관에 의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7개의 도서관중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만이 시각장애자 봉사를 하고 있다.

청안자들을 위한 것은 모두 공비로 운영되면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것은 스스로 돈을 모금하고 스스로 책을 만들어야 하는 모순을 없애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자들은 2등시민이 아니므로 시민으로서 당연히 공공도서관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봉사」가 아니라 「당연한 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을 위해서도 공공도서관의 필요가 커지고,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는 더욱 필요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도서관에서 어

느정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나 사회에 나오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더욱 절실해진다.

따라서 점자도서관이라는 특수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전국의 기존 공공도서관을 지역조직체로 활용하면 봉사의 확대가 빠르고 그 효과도 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도서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활발하고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처럼 한국의 국회도서관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점자도서관을 비치하여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국가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4. 저작권 문제

시각장애자에 있어서 목자도서관은 단지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점자화, 음성화되어야 비로소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자화, 음성화를 「복제」라는 개념에는 통용되지 않으나 저작권법상 장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봉사가 맹인용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녹음 및 복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한국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 17 조에도 「무단번역등으로 저작권 출판권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녹음 및 복사를 할 때마다 허락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법률로 녹음을 인정하는 조항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측도 재생기의 전용화(일반테이프레코더로서는 청취할 수 없는 폐쇄장치)같은 문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시설 및 건축상의 문제

시각장애자가 도서관보다 집에서 독서하기를 원하면 우송봉사를 받을 수 있지만 도서관에 와서 봉사받기를 원하면 집에서 도서관에 올 때까지의 시설물은 물론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을 들어섰을 때 출입구 표시를 알리는 점자블럭이나 맹인용신호기를 부설할 수 있고, 그 다음 각 실을 안내하는 점자식 안내판과 점자블럭이 연속적으로 깔려 있어야 원하는 실로 갈 수 있다.

다른 층으로 갈 때는 계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경사로를 두게 하고 엘리베이터일 경우는 보턴이 돌출되어 있거나 보턴옆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외에도 시각장애자들이 층을 알 수 있도록 신호부분이 오디오로 설계되어야 하며 각 실앞에는 그 실에 맞는 점자표지의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또 공중전화는 맹인용 다이얼이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자에게 편리한 것이 전체에게도 편리하며, 시각장애자를 위한 길이란 바로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 VII. 결 언

위에서 살펴본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은 현실적 단계로는 도서관측에서의 자각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했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법률 제 3452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국민으로서 시각장애자들의 권리보호의 외형적인 것이고 시각장애자 자신의 자립정신 함양과 사회의 편견의 해소와 같은 내면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보건사회부의 직장알선이나 재활봉사와 같은 관계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역화, 음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시각장애자의 부족한 정보입수에 비추어 공공도서관의 봉사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진정한 「완전참여와 평등」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加藤 清, 瀧尾 恵子, “視覚障害者の讀書用機について”, 現代の圖書館, Vo.13, No.3, 1975, pp.92 - 96.
- 加藤 善徳, “日本點字圖書館 40 年をふり返つて”, 圖書館雜誌, Vo.75. No. 1. 1981, pp.11 - 12.
- 工藤 孝雄, “福祉と圖書館”, 圖書館雜誌, V.75, No.1, 1981.p.12.
- 東亞原色百科事典, 서울:東亞出版社, 1983.
- 배순자, “身體障碍者에 대한 圖書館奉仕 - 肢體不自由者를 中心으로 -”, 國會圖書館報, V.22, No.6, 1985, pp.19 - 33.
- 朴玉花, “障碍者를 위한 公共圖書館奉仕에 관한 研究 - 視覚障碍者를 中心으로 -”, 충남대 학교인문과학연구, 제 11 권 2 호, 1984, pp.439 - 457.
- 本間 一夫, 岩橋 英行, 田中 農夫男共編, 點字と朗讀への招待, 東京: 福村出版, 1983.
- 孫蓮玉, 南權熙, “障碍者를 위한 圖書館奉仕에 관한 研究 - 身體障碍者를 中心으로 -”, 慶北大學校圖書館學科創立十周年記念論文集, 1984, pp.123 - 168.
- 小木 曾眞, “障碍者サービス”, 圖書館界, V. 36. No.5. 1985, p.316, pp. 314 - 319.
- 石見 尚, 圖書館の時代, 東京: 論創社, 1980.
- 糸林 保夫, “點字圖書館界として望むこと”, 圖書館雜誌, V.76. No.2, 1982, pp.92 - 93.
- 三上 洋, 百萬人の點字教室, 東京: 國際プレスセンタ, 1984.
- 森耕 一, 公立圖書館原論,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83.
- 桒上 衛, 圖書館活動, 東京: 東京書籍, 1983.
- 天戶 伴久, “アメリカにおける身體障害者に対する圖書館サービス-議會圖書館を 中心に-”, 現代の圖書館, V.13, No.3, 1975, pp.97 - 104.
- 日本圖書館協會編, 圖書館 Handbook, 東京: 同協會, 1979.
-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編, 障碍者福祉便覽, 서울: 同財團, 1981.
- 田中 章治, “障碍者サービスの現状と課題 - その理論的實踐的飛躍をめざして”, 圖

- 書館界, V.34, No.1, 1982, pp.17-23.
- 前田 章夫, “障害者サービスの到達點とこれからの問題”, 圖書館雜誌, V.75, No.1, 1981, pp.19-21.
- 前田 章夫, “障害者にとっては一対面朗讀サービスの現状かみちる問題と課題-”, 圖書館界, V.31, No.2, 1976, p.202.
- 樽谷 明, “障害者サービスの盲人司書の必要”, 圖書館界, V.32, No.2, 1980, pp.75-77.
- 한국시각장애 자복지회편, 전국맹인복지기관총편람, 서울: 동북지회, 1985.
- 韓國保健開發研究院 編, 心身障碍者實態報告書, 서울: 同研究院, 1980.
- 河村 宏, 申香淳 譯, “國際障碍者の 海에 있어서 圖書館의 役割”, 國會圖書館報, V.18, No.2, 1981, pp.57-62.
- 河村 宏, “米國圖書館の 障害者サービスを訪れて”, 圖書館雜誌, V.75, No.5, 1981, pp.264-265.
- Haycraft, Howard, 瀧澤義雄 譯, “盲人と身體障害者のために圖書を解説と評價”, 現代の圖書館, 特別號 No.2, 1979, pp.55-77.
- \_\_\_\_\_, 篠崎セウユ 譯, “盲人および視覺障害者のためのサービスの基準”, 現代の圖書館, V.13, No.3, 1975, pp.105-118.
-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hicago: ALA, 1980, pp.230-234.
- CERI, The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dolescent: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ing Life, Paris: OECD, 1983.
- Cylke, Frank Kurt, et al., "Research to Develop Information Service Aids and Program for Handicapped Individuals," Drexel Library Quarterly, V.16, no.2, 1980, pp.59-71.
- Genevieve, M. Casey "Library Service to the Handicapped and Institutionalized," Library Trends, v.20, no.2, 1971, pp.350-365.
- Hagle, Alfred D., "Information Access by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12,
- Hooker, Fran, "Computerized Braille: a Boulder Story," Wilson Library Bulletin, v.59, no.8, 1985, pp.527-530.
- Wesley Simonton, ed.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pp.248-275.

- Judd, P.M., "The Library and Information Needs of Visually Handicapped Students: a survey of the Problems with some suggestions for Academic Library Policy," Journal of Librarianship, v.9. no. 2, 1977, pp. 96-107.
- Kelly, Thomas, A History of Public Libraries in Great Britain: 1845-1965,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3.
- Kent, Allen & Lancour, Harrod, ed. Encyclopedia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v. 3, New York: Marcel Dekker, 1970.
- Lovejoy, Eunice, "Library Service to Handicapped People and the Role of the Advisory Committee," Public Library Quarterly, v. 1, no. 4, 1979, pp. 377-386.
- Lucas, Linda, "Education for the work with Disabled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Journal of Librarianship, v. 23, no. 3, 1983, pp. 207-223.
- McCarrol, Jane, "Innovative Technology: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Drexel Library Quarterly, v. 16, no. 2, 1980, pp. 73-80.
- Macon, Myra, ed. School Library Media Service to the Handicapped. Westport: Greenwood Press, 1982, pp. 131-164.
- Marshall, Margaret R. Libraries and the Handicapped Child, Boulder, Col.: Westview Press, 1981, pp. 67-82.
- Roth Helga, "Information and Referral for Handicapped Individuals", Drexel Library Quarterly, v. 16, no. 2, 1980, pp. 48-57.
- Stone, Elizabeth, "Educating Librarians and Information Scientists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to Disabled Individuals", Drexel Library Quarterly, v. 16, no. 2, 1980, pp. 10-31.
- Strom, Maryalls G. ed. Library Service to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7.
- Wright, Keith C. & Davie, Judith 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for Handicapped Individuals. 2nd ed. Littleton, Col.: Libraries Unlimited, 1983, pp. 17-52.

A Study on the Library Service for the Visually  
Disabled Persons

Son, Moon-Chul\*  
Kim, Young-Ku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The coverage of this study is 1) The Concept and categorization of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2) History of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3) Activities and current situation of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4) Activities of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in Korea. 5) problems of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The followings are some of major points revealed in problems of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1. Attitudinal barriers which grow out of prejudice because of lack of public awareness of all the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2.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reading aids and innovative technology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3. Extension of information service in public library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4. Copyright problems.
5. Facilities or architectural problems for the blind and visually disabled persons.

---

\* Dep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 Taeg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Dep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 Taegu University, Lecturer.